어머니의 취업관련 태도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ternal Attitude Towards Maternal Employment on Social Competence of First-Graders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복지학과
조 교 수 장 영 은**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istant Professor : Young Eun Chang

<Abstract>

The relations of mothers' attitudes regarding maternal employment to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mothers' parenting sensitivit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ere examined for mothers who worked full-time (extensively) from age 6 months of their children on, mothers who were not employed, and mothers who worked part-time or inconsistently during their children's early years. Longitudinal observations of 1,034 mothers and children in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from age one month to first grade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As predicted, mothers and children benefited when maternal attitudes were consistent with mother's actual employment status. Among extensively employed mothers, those with positive attitudes about employment had better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others who were not employed, those who believed that maternal employment would have negative consequences for children's development reported bette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findings suggested that whether the mother's status of employment is congruent with their beliefs, not whether the mother is working or not, predicted the mother's well-being and their child's social development.

▲주요어(Key Words) : 어머니 취업 (maternal employment), 취업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s maternal employment), 심리적 복지감 (psychological well-being), 양육 민감성 (parenting sensitivity), 사회적 유능감 (social competence)

Ⅰ. 서 론

1. 문제제기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7년 현재 50.3%로서 , 이 중 절반 가량이 20대와 30대 여성으로 집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8). 이는 미국의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인 69.2%(2005년 기준) 등 OECD 국가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여비율인 60.1%(2005년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1970년대 39.3%에 비해 점진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통계청, 2001),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혼여성의 경제참여비율이 미혼여성의 참여율을 앞지르기 시작하여, 최근 자료

* 이 연구는 2008년 중앙대학교 교내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장영은 (E-mail : yechang@cau.ac.kr)

에 따르면 그 참여율이 75.3%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5).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은 취업모의 역할 갈등을 포함한 심리적 복지감과 어머니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Fuller et al., 2002; 김정희・문혁준, 2006; 배성연, 2005). 하지만 이들 연구 결과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어머니 취업이 각 가족에게 주는 의미와 영향력이 다양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수준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의 작용으로 인해 어머니 취업이 어머니 자신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Bronfenbrenner (1982)가 제기한 '사회적 주소(social address)'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취업모 또는 전업주부로서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이해는, 본인이 취업모로서 또는 전업주부로서의 경험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processes)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을 해석하는 가족 내 근접과정 (proximal processes)은 개인의 신념체계나 가족 내 관계 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반하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취업에 대한 신념,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취업했을 때에 자녀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신념이, 본인의 취업한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가지는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의 생애 첫 3년 동안의 어머니 취업 정도를 바탕으로 이 관계들을 비교하여, 조기 어머니 취업(early maternal employment)의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의 관심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어머니 취업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e.g., Cummings, 1944; Glueck & Glueck, 1957; Mathews, 1934). 이러한 연구는 어머니의 부재가 어린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Gottfried et al., 1995, Stolz, 1960). 최근의 연구들은, 자녀 생애 초기, 즉 자녀의 출생부터 만 2, 3세 이전의 어머니 취업의 영향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e.g.,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a; Waldfogel et al., 2002), 이는 이 시기 유아가 어머니를 포함한 보육제공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이후 건강한 발달의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육경험에 따른 아동 발달의 결과를 다룬 종단연구들은 생애 초기의 보육 경험, 특히 지속적인 종일제 보육경험이 이후 불안정한 애착발달과 연관될 수 있으며, 부모-자녀관계를 해치거나, 공격성 및 비순응성으로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Belsky & Rovine, 1988; Jacobson & Wille, 1984; Vaughn et al., 1980). 하지만 다른 한 축의 연구들은 조기 어머니 취업과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발달적 결과 간의 유의한 부정적 관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Caruso, 1996; Crockenberg & Litman, 1991; Gottfried et al., 1988, 1995; Harvey, 1999). Crockenberg와 Litman(1991)는 만 2세 이전에 어머니가 취업한 아동들이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성인의 요구에 대해 더 순응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미국 청소년 종단 연구(NLSY: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Harvey(1999)의 연구에서 만 3세까지의 어머니 취업여부와 취업시간이 아동의 문제행동, 순응성,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같은 연구자료를 이용한 추후 연구들에서는 어머니가 자녀 생후 12주 이전에 전일제 취업으로 복귀했을 때, 자녀 4세에 측정한 외현적 문제행동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감소하다가 결국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Han et al., 2001; Ruhm, 2005).

이와 같이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체가 부모-자녀 관계 및 아동의 발달을 예측하지는 않으며, 예측하는 경우에도 그 효과가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취업 또는 비취업이 가지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어머니의 가치관이나 신념임을 밝혔다. 비취업모의 자녀들이, 어머니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늘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취업모나 비취업모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자녀들이 외현적 문제행동 등 부정적 발달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Barling et al., 1993; Lerner & Galambos, 1988; MacEwen & Barling, 1991). Barling과 동료들은 "역할의 점유가 아닌, 역할에 대한 경험의 질"이 자녀의 발달을 예측한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가지는 취업에 대한 일반적 신념이 36개월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종일 보육을 받는 유아[1]는 어머니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유익할 것이라 믿을수록 사회정서발달 관련 점수가 높았다. 반대로 전혀 보육을 받지 않는 유아의 경우, 어머니가 유자녀여성 취업이 가지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문제행동 점수는 높고, 사회적 유능감 점수는 낮았다. 앞서 Farel (1980)이 아동의 학교적응성을 연구하면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고,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집에서 자녀를 기르고 있는 경우, 이들 자녀들의 학교 적응력과 자신감이 낮다고 보고했다. 반면 학령기 전에는

1) 종일 보육을 받는다는 것이 어머니의 취업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나,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사료된다.

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취업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가 학교에 더 쉽게 적응했다.

이렇게 어머니가 취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 아동의 사회성 발달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에는 어머니의 취업정도와 아동의 발달적 결과를 매개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and Human Development)의 종단적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Chang과 Huston(2001)은 어머니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업모들은 역할 긴장과 양육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끼고 자신 역할에 대한 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의 가치관과 취업상태의 일치도가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결과(Goldberg et al., 1992; Hock & DeMeis, 1990; Klein et al., 1998; Repetti et al., 1989)를 지지하였다. 어머니의 신념은 자녀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Yarrow등 그리고 Heinig(1964)의 연구에 따르면 전업주부가 취업을 선호하는 가치관을 가진 경우 자녀 양육에 있어 불필요한 통제를 더 자주 사용하며, 모성역할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며,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만족도도 낮았다. 이후 Stuky와 동료들(1982)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이중역할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자신의 취업여부와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노출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취업여부에 대한 결정, 취업을 하게 된 계기, 또는 전업주부로 남게 된 이유 등 어머니가 경험하는 취업 또는 비취업 상태가 자신의 신념 또는 선호와의 일치하는지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밝혀져 온 어머니 취업여부, 어머니의 태도와 신념,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태도, 그리고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의 여러 변인 간의 관계들을 한 모델에 포함하여 이들 변인들간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 및 매개효과를 어머니의 조기취업정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생후 초기 어머니의 취업정도에 따른 자녀의 발달적 결과로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사회정서발달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입학 시기가 아동 또래 관계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사회정서적 능력을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시기이며, 어머니가 자녀 출생 후부터 곧 취업했는지에 따라 학교생활에 차이를 보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구체화되는 시기라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엔 이미 많은 어머니들이 취업경험이 있고(본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약 86%), 그 경험의 수위도 다양하여 한 시점의 단순한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자녀의 발달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종단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집단을 보다 순수한 취업, 비취업, 중간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 분류의 시기를 어머니 취업이 자녀 발달에 비중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영유아기(Berger et al., 2008; Han et al., 2001; Harvey, 1999; Waldfogel et al., 2002)로 정하였다. 즉, 자녀가 생후 36개월이 되기 이전의 어머니의 취업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가지고 있는 취업관련 태도가 이후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지연 효과(lagged effects)를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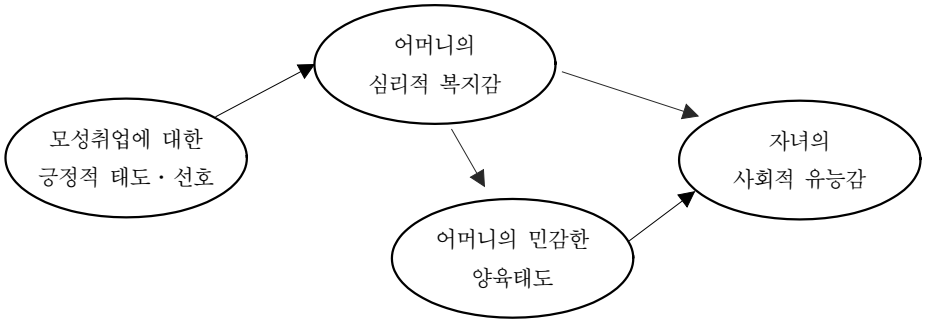
3. 연구문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조기취업여부와 자녀의 발달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태도 및 가치관의 중요성을 조명해왔으며, 어머니의 신념과 가치관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나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내외의 연구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한 연구모델에 포함시켜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결과와 제이론, 그리고 여성취업의 영향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델

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취업관련 태도, 심리적 복지감, 민감성, 그리고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는 어머니 조기취업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개념적 모델 <그림 1>을 구성하였으며, 자녀가 3세 되기 이전에 전일취업으로 돌아간 어머니 집단과 전혀 일한 경험이 없는 비취업모 집단, 그리고 취업을 늦게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취업했던 중간집단을 구성하여, 모델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집단간 비교하였다. 전일취업 어머니는 자녀가 생후 6개월에 접어들면서부터 36개월이 될 때까지 언제나 주당 30시간 이상 취업했던 어머니이다. 이 30시간의 기준은 Brooks-Gunn과 동료들(2002)의 연구에서 전일취업(Full-time employment)의 정의에 사용되었으며, 보육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종일보육을 정의하는 기준이기도 하다(NICHD ECCRN, 1998; 2000). 중간 집단 어머니는 취업모 집단 또는 비취업모 집단에 속하지 않은 그룹으로서, 취업시기를 늦추거나, 주당 30시간 이하로 취업한 경우, 또는 취업하였다가 그만 둔 경우 등 다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을 포함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국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가 1991년 미국 10개 주에 위치한 31개의 주요 병원에서 출산을 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시작한 종단연구인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방문한 8,986명의 어머니들 가운데 5,265명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면서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1,364명의 어머니를 무선표집하여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어머니와 그 가족들은 현재까지 이 연구에 참여하며 청소년기에 이른 자녀의 발달 및 가족의 변화를 비롯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http://secc.rti.org 참조).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연구자료에는 총 1,034명의 어머니가 종단연구에 남아 조사에 응답했으며, 자녀 출생 이후 3년이 되기 전에 전일취업한 어머니 276명과,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 200명, 그리고 중간집단 558명과 그 자녀들이 최종분석대상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보자면, 75.7%의 어머니가 취업한 상태며 주당 평균 26시간의 일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평균교육연한은 약 14년이며, 82%가 남편과 한 가구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 자녀의 79%가 백인이었다.

연구대상의 집단별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취업모와 비취업모는 중간 집단의 어머니에 비해 연령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취업모가 가장 높았다. 비취업모의 평균 자녀수는 2.6명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대상자녀가 첫째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취업관련 신념은 취업모가 중간 집단보다, 중간 집단 어머니가 비취업모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취업상태가 전업주부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비취업모 집단이 가장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른 취업관련 신념의 차이는 손경화와 조복희 (2009)의 연구에서도 유의하였다.

2. 측정도구

1) 가족관련변인

본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인 중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연한, 인종, 자녀 성별, 자녀 출생순위, 자녀수는 첫 면접인 생후

<표 1> 연구대상의 집단별 일반적 특성

	취업모		비취업모		중 간		F (2, 1210)
	M	SD	M	SD	M	SD	
인구학적 변인							
어머니 연령	29.53[a]	4.95	28.75[a]	6.05	27.69[b]	5.63	12.49***
어머니 교육연한	14.75[a]	2.35	14.14[b]	2.78	14.22[b]	2.45	5.90**
자녀수	1.93[a]	.94	2.63[b]	1.13	2.05[a]	.92	41.46***
자녀=남아	.50	.50	.49	.50	.53	.50	1.17
출생순위=첫째	.46a[a]	.50	.31[b]	.46	.50[a]	.50	12.67***
취업관련 신념							
취업영향 신념	4.71[a]	6.11	-3.58[b]	6.54	.45[c]	6.80	111.00***
전업주부가 이상적	.17[a]	.38	.49[b]	.50	.28[c]	.45	36.69***

주. 서로 다른 문자는 Tukey 검증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N은 변인에 따라 취업모 263~321명, 비취업모 189~241명, 중간집단 540~651명. *p<.05.**p<.01.***p<.001.

1개월 면접을 통해 질문지 조사하였으며, 가족소득과 혼인상태는 이후 실시된 6, 15, 24, 54개월, 유치원 그리고 일학년 면접시 질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해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혼인상태는 면접시기 중 혼인 또는 동거를 통해 가구내 배우자가 함께 살았던 시기를 비율로서 계산하여 포함하였다.

2)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라는 잠재변수는 생후 1개월 면접에서 작성한 Beliefs about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BACMEC; Greenberger, Goldberg, Crawford, & Granger, 1988)으로 측정된 "어머니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념"과 생후 36개월에 측정한 "나의 이상적인 취업상태"로 구성되었다.

Beliefs about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은 어머니 취업이 자녀 발달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5개의 문항과 부정적 영향에 관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긍정적 영향(benefit)의 하위영역은 "취업모의 아들은 이후 결혼하였을 때 직장여성인 부인을 더 잘 배려할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반면 부정적 영향(cost)의 하위영역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엄마의 자녀는 엄마와 따뜻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변인은 부정적 영향의 점수를 긍정적 영향의 점수에서 빼는 방식으로 총점을 구해 분석에 이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믿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이었다.

어머니의 이상적인 취업상태는 1=풀타임 취업, 2=파트타임 취업, 3=전업주부의 세 선택지 중 선택하도록 1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1=전업주부"의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3)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어머니의 우울, 불안, 그리고 분노의 세 측정변수로 형성되었으며, 자녀가 1학년일 때 설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어머니 우울*은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Radloff, 1977)를 통해 측정되었다.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느낀 바를 묘사한 20문항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인 20개의 문항 중 4문항을 재부호화하여 합산한 점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높은 점수는 어머니의 우울함이 높음을 의미하며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로 높았다. 어머니 불안과 분노는 "나의 감정 II"라는 질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10개의 짝수 문항은 특성분노척도(State-Trait Anger Scale; 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의 분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10개의 홀수 문항은 특성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pielberger, Gorsuch, Lushene, Vagg, & Jacobs, 1983)의 불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인 이 문항간의 내적 신뢰도는 분노 .90, 불안 .86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어머니의 민감성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의 민감성은 지지, 자녀 자율성의 존중, 그리고 적대감의 세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관찰되었다. 이 세 변인은 자녀와 어머니 간의 상호작용을 사전 훈련된 연구원이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연구원은 실험실을 방문한 어머니와 자녀에게 연령에 맞는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15분간 녹화하여 추후 분석하였다. Vandell(1979)에 의해 고안된 '세 상자 과제'는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에게 세 개의 상자에 든 장난감은 차례로 보여주게 하였다. 그리고 각 상자별로 어머니와 자녀가 해결해야할 과제를 주었다. 처음 두 과제는 유아가 혼자하기에는 어려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활동이며, 세 번째 과제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놀이를 유도하는 활동이었다. 첫 활동은 Etch-A-Sketch라는 그리기 교구에 집과 나무를 그리는 과제였으며, 두 번째 과제는 아동이 세 개의 기하학적 모양에 색깔 블록을 껴맞추도록 하였다. 세 번째 활동은 "One-up; One-down"이라는 카드게임을 어머니와 자녀가 하는 과제였다. 어머니는 각 상자를 열고 자녀가 상자 안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격려하며, 연구원에 의해 지시받은 순서대로 가지고 놀도록 자녀와 상호작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비디오 자료는 소정의 자격과정을 수료한 분석연구원들에 의해 분석되었다. 연구원은 7점 척도에 어머니의 지지적 행동, 자녀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표현인 적대감 항목을 측정하였다. 관찰자의 내적일관성은 각각 .89, .88 그리고 .81였으며, 관찰자 간 일치도를 나타내는 Pearson's 상관계수는 80, .79, 그리고 .68로 나타났다.

5)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은 1학년 면접에서 어머니가 응답한 사회적 기술 측정시스템 (Social Skill Rating System) (SSRS: Gresham & Elliot, 1990) 에 의해 측정되었다. SSRS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서, 3점 리커트 척도인 38개의 문항에 자녀의 행동 빈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의 사회적 유능감은 SSRS의 하위변인 중 책임감(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기 전에 허락을 받는다), 협동(예:가족원을 돕는다), 자기주장(예: 놀이 중 친구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기조절 (예: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의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신뢰도는 협동 .78, 자기 주장 .78, 책임감 .65, 그리고 자기조절 .8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및 측정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취업집단 간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의 영향에 대한 태도, 심리적 복지감, 민감성, 그리고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개념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SEM) 기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은 각 변인간의 경로의 유의성 뿐 아니라 가설화된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 배경에 의해 구성된 모델의 전반적 타당성을 밝히는 데에 유용하다(Kline, 1998). 또한 가설모델의 취업집단 간 차이를 역시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으로 비교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구조방정식 해석에 앞서 어머니 및 자녀 관련 분석변인들의 기술적 통계를 구하고, 취업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사회적 복지감, 어머니 양육행동에서의 민감성, 그리고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구성하는 변인들 간의 취업집단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통해 분석한 취업모와 비취업모, 그리고 중간집단의 모델 결과는 각각 다음의 <그림 2> (취업모) 및 <그림 3> (비취업모), <그림 4> (중간집단)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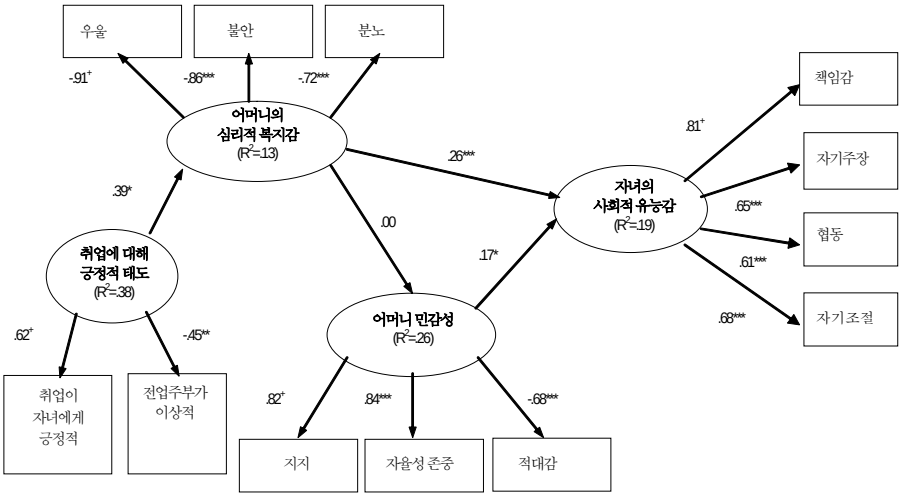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Bentler, 1990), 근사평균 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Browne & Cudek, 1993; Steiger, 1990), 그리고 카이자승을 자유도로 나눈 χ^2/df을 사용하였다. CFI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RMSEA의 경우 .05 이하의 값일 때 모델의 적합도가 우수함을 의미한다. 또한 모델의 복합성과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카이자승을 자유도로 나눈 χ^2/df은 3 이하일 때 연구가설 모델이 주어진 연구대상에 잘 부합함을 나타낸다(Bollen, 1989). 취업모의 모델인 <그림 2>의 결과에서는 CFI=.996, RMSEA=.040, χ^2/df = 1.44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모델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의 비취업모 집단의 모델적합도도 높았다(CFI=.994, RMSEA=.045, χ^2/df = 1.41). 중간집단의 경우도 모델적합도는 바람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FI=.996, RMSEA=.040, χ^2/df = 1.87). 연구문제별로 각 모델의 해당 경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결과를 해석해볼 수 있다.

1. 취업에 대한 태도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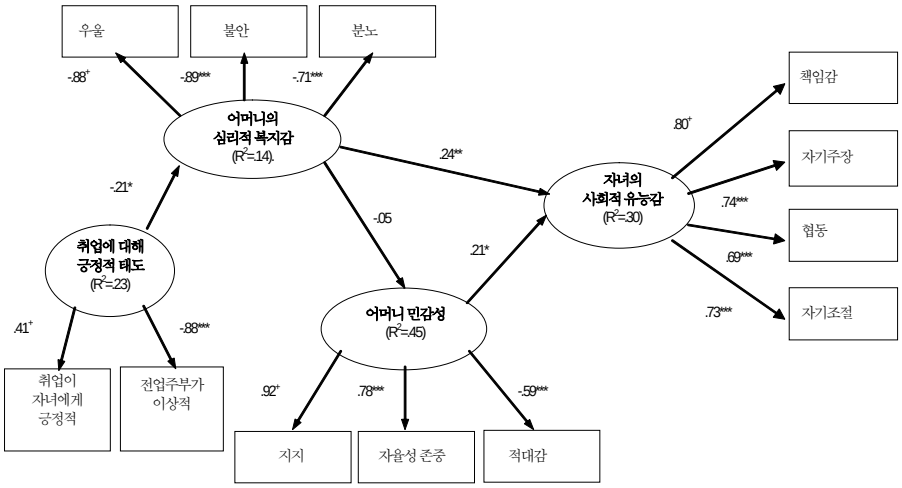
취업모 집단의 경우, 어머니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유자녀 어머니의 취업을 인식할 때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β =.39, p<.05). 다시 말해, 본인의 이상적인 취업상태가 전업주부가 아닌 파트타임이나 전일제 취업이며,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을수록, 취업모의 우울함과 양육스트레스는 낮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비취업모의 모델에서는 이 관계가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유자녀 여성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비취업모의 심리적 복지감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β =-.21, p<.05).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집단에 있어 취업에 대한 태도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은 반대로, 그 상대적 크기는 취업모의 경우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중간 집단의 어머니들에게는 취업에 대한 태도와 심리적

<표 2> 취업집단별 분석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비교 결과

	취업모		비취업모		중 간		F (2, 1000)
	M	SD	M	SD	M	SD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우 울	7.92	7.77	8.57	9.61	8.55	8.41	.53
분 노	13.73	4.10	13.73	3.93	14.15	4.72	.36
불 안	17.37	5.37	17.27	5.27	17.60	5.09	1.14
어머니의 민감성							
지 지	5.30	1.25	5.08	1.46	5.12	1.41	1.84
자율성 존중	5.32	1.12	5.30	1.22	5.21	1.17	1.07
적대감	1.48	.82	1.48	.89	1.58	.99	1.60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책임감	13.96	2.79	13.71	2.91	13.89	2.72	.49
자기주장	17.42	2.16	17.07	2.60	17.13	2.39	1.73
협 동	15.17	4.14	15.49	4.33	15.67	3.94	1.53
자기조절	13.00	3.33	12.95	3.50	13.02	3.28	.03



<그림 2> 취업모 집단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예측하는 모델



<그림 3> 비취업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예측하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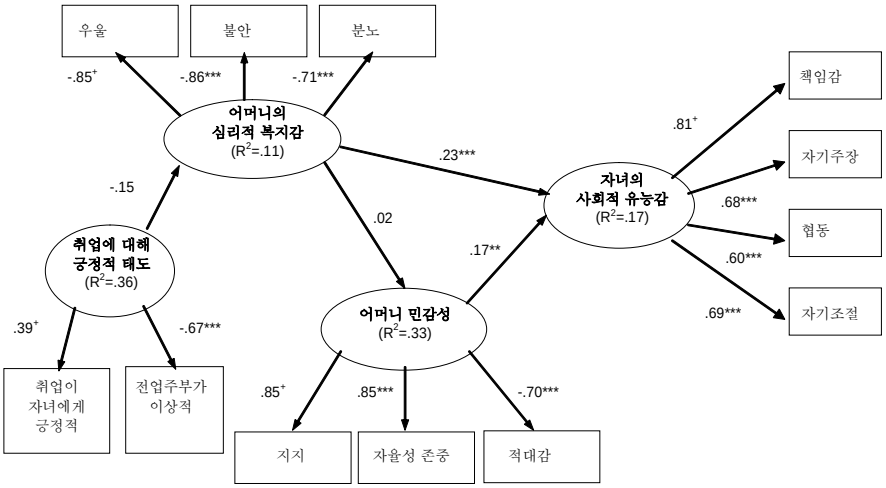
복지감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취업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자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에서 모두 취업에 대한 태도는 심리적 복지감을 유의하게, 그러나 반대의 방향으로 예측하였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모 집단에서 심리적 복지감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 경로의 표준화된 계수는 .26 ($p<.01$), 비취업모 집단에서는 .24 ($p<.01$)로 그 크기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간 집단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나 (β = .23, $p<.01$), 취업관련 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어머니 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

3.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민감성을 통해 자녀 사회적 유능감이 미치는 영향

세 집단에서 모두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관찰자가 관찰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취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경로에 있어서 어머니의 민감성이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36개월의 어머니 및 자녀 변인을 이용하여 검증했던 연구결과(Chang, 2003)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자녀 관계에서의 민감성을 유의하게 예측했던 것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김정희와 문혁준(2006)이 취업모의 스트레스 및 역할 만족도와 긍정적인 양육



<그림 4> 중간집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예측하는 모델

<표 3>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예측하는 모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모델적합도, 및 집단간 비교

취업집단	경로계수				모델적합도		
	취업태도 →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 → 민감성	심리적 복지감 → 사회적 유능감	민감성 → 사회적 유능감	CFI	RMSEA	χ^2/df
취업모	.39*	.00	.26***	.17*	.996	.040	1.44
비취업모	-.21*	-.05	.24**	.21*	.994	.045	1.41
중간집단	-.15	.02	.23***	.17**	.996	.040	1.87

전체 집단비교 (세 집단): $\Delta\chi2(8)=16.42$*
취업모 대 비취업모: $\Delta\chi2(4)=14.73$**
취업모 대 중간집단: $\Delta\chi2(4)=7.67$†
비취업모 대 중간집단: $\Delta\chi2(4)=1.23$,ns

*p<.05, **p<.01, ***p<.001

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했던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4. 어머니의 취업관련 태도, 심리적 복지감, 어머니의 민감성, 그리고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의 취업집단 차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어머니의 취업관련 태도, 심리적 복지감, 양육태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사이의 관계가 자녀의 생애 초기에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일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에 있다. 따라서 개념적 모델에 가정된 관계들의 유형이 세 취업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은 연구가설에 규정된 변인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의 유형이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잠재변수와 이를 관찰변인들과의 경로를 고정하고, 연구문제에 따른 인과적 관계의 경로는 고정하지 않은 가운데, 고정된 모델과 본 모델을 비교하여 χ^2의 유의한 감소가 있을 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Cheung & Rensvold, 2002). 우선 세 취업집단 사이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서와 같이 $\Delta\chi^2(8)=16.42$ ($p<.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어 보다 순수한 취업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전일취업 집단과 전업주부 집단을 비교한 결과, 취업관련 태도, 심리적 복지감, 모-자녀 관계의 질, 그리고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사이의 인과적 모델의 관계가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사이에 유의미하게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Delta\chi^2(4)=14.73$, $p<.01$). 반면, 중간집단은 취업했던 어머니나 전업주부였던 어머니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어머니의 태도와 신념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전일제로 취업했던 어머니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들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동적인 취업의 경험을 가졌던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지속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계속 비취업 상태였던 어머니의 자녀가 어머니의 취업신념과 취업상태의 일치 또는 불일치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가치관이 취업모에게는 긍정적인, 비취업모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이 가족 및 자신에게 가지고 오는 혜택을 믿는 취업모들이 더 심리적으로 건강하며(Chang & Huston, 2001; Goldberg et al., 1992), 자신이 선호하는 취업의 상태와 현 상태가 일치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Hock & DeMeis, 1990)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더욱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일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모델에 공변인으로 포함됨으로써, 어머니의 신념, 양육행동의 질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들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다양한 통제변인이 포함된 상태에서도 모델은 어머니의 태도가 어머니 및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두 번째로는 각 취업 집단 내에서 어머니 취업관련 태도의 변인이 가지는 분포의 폭이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밝힌 어머니의 취업관련 태도와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는, 비취업모 집단 및 다양한 취업경험을 가진 어머니를 연구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기존에 취업 어머니가 가진 취업에 대한 선호를 연구에 포함한 경우는 가끔 있었으나, 신념이나 태도를 분석한 경우는 없었다. 취업모의 역할 갈등 및 일-가정 양립의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으나, 취업하지 않은, 또는 취업하지 못한 여전히 많은 여성,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잠재적 노동력에 대한 관심은 과소평가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보는 사회적 가치의 딜레마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취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비취업모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 자녀에게는 불리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자아실현의 요구, 경제적 필요성 또는 사회적으로 그려지는 직장여성에 대한 긍정적 상(象)과 자신의 현실과의 괴리에 따른 인지적 부조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종단적 모델을 설계하여 어머니가 가진 태도와 신념이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녀 출생 1개월 후에 설문조사한 어머니 취업에 대한 태도와 자녀가 만 3세 때 가졌던 이상적 취업상태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가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당시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였으며, 특히 조기 취업 경험을 가진 어머니 집단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정도 되었을 때에는 대부분 자녀가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어머니의 취업도 많아져 자녀가 영유아 시기에 가졌던 태도와 신념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과는 다른 연구결과였다. 또한 종단적 연구모델은 최근 어머니 취업의 영향력에 있어 취업시기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들(Berger et al., 2008; Han et al., 2001; Harvey, 1999; Waldfogel et al., 2002)과 연구 관심사를 공유하며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이전의 어머니 취업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관련 태도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살폈다는데 의의가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자녀 양육태도의 특성이 어머니의 취업관련 태도와 자녀의 발달적 결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하게 예측하여 결국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여성 취업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기대할수록 취업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점수가 높고, 반대로 비취업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머니의 태도와 선호가 실제 취업상태와 일치할 때 자녀 발달에 유리하다는 기존 연구결과(Crokenberg & Litman, 1991; Farel, 1990; MacEwen & Barling, 1991; Hock & Clinger, 1981)를 지지한다.

반면 어머니의 복지감은 양육행동에서의 민감성을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델 (Chang, 2003)에서 "어머니의 태도 → 심리적 복지감 → 양육 민감성 → 자녀의 문제행동 및 사회적 기술" 의 유의한 경로를 발견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어머니 신념과 취업상태의 일치도가 양육태도의 민감성을 예측한 Crokenberg과 Litman (199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본 연구 자료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민감한 양육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통제변인과 여러 인과관계가 포함된 모델에서 그 유의한 상관관계가 사라진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초등학교 진학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 민감성은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가 아닌 다른 요인들, 즉 가정환경이나 어머니의 교육 수준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1학년에 주어진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의 과제는 영유아 대상 과제에 비해 보다 인지적 성격을 띈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또는 대화가 통하는 이 연령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보다 어린 자녀를 대할 때보다는 심리적 안녕감과 무관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용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자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서 약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고해왔다 (Belsky, 1990; Clarke-Stewart et al., 1994;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8b). 즉,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은

취업모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아닌 보육시설이나 자신을 돌보아 주는 다른 성인의 특성에 의해 그 행동적 결과가 설명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취업경험을 가진 세 집단의 어머니 모두 비슷한 크기의 영향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예측하였다. 이는 어머니 취업으로 인한 부모-자녀시간의 양적 감소가 자녀의 애착, 사회적 발달, 또는 인지 발달을 의미있게 설명하지 못하며, 취업 유무에 관계없이 자녀와의 놀이시간 등 양질의 상호작용에 할애하는 비중, 어머니의 적응, 가치관, 태도 등의 개인적 특성, 그리고 전반적 가정환경이 자녀의 발달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 (Huston & Aronson, 2005)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 집단'이라는 다소 새로운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 집단은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이전에 '지속적인 전일제 취업' 또는 '전업주부'라는 일반적 취업집단의 구분과는 달리, 보다 현실적인, 다양한 취업 및 비취업 경험을 가진 어머니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집단의 구성은 풍부한 종단적 자료로 인해 가능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간 집단 어머니들이 가지는 취업 관련된 태도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취업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왔던 집단의 어머니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 자신의 선호, 자녀의 발달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취업과 비취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집단일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 집단의 어머니는 신념과 가치관 대 실제 취업 상태 간의 괴리를 가장 덜 경험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어머니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한 번의 설문에 그쳤으며, 이후에 종단적으로 이 신념의 변화를 추적하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신념이 이후 5~6년간 조사한 다양한 직업관련 변인, 즉 어머니가 경험하는 일-가정 갈등, 직업충성도, 취업시간 등과 상당히 일정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기에, 이 변인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개념을 측정했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과 가정 간의 균형, 취업모로서, 또는 비취업모로서의 만족과 불만족, 자녀의 기질, 자녀의 행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신념과 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단적 자료가 수집, 분석되지 않은 것은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추후에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취업의 영향에 대한 신념과 태도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버지나 친정부모가 가지고 있는 취업 관련 태도가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역시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어머니가 가지는 개인적 신념은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적 차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관련 태도가 어머니 자신 및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 또한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김정희 · 문혁준(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1), 115-129.

배성연(2005). **취업모 자녀의 사회 정서적 행동 반응 관련 요인 :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손경화 · 조복희(2009). 취업신념 측정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여성가족부(2008), 여성가족통계연보 제3호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조사**.

Barling, J., MacEwen, K. E., & Nolte, M. L.(1993). Homemaker role experiences affect toddler behaviors via maternal well-being and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 213-229.

Belsky, J.(1990). Consequences of child care for children's development: A deconstructionist view. In A. Booth (Ed.),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s (pp.83-9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elsky, J., & Rovine, M.(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59,157-167.*

Berger, L., Brooks-Gunn, J., Paxson, C., & Waldfogel, J. (2008). First-year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outcomes: Differences across racial and ethnic group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 (4), 365-387.*

Bollen, K. A.(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Y.: Wiley.

Bronfenbrenner, U.(1982). The context of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context. In R. M. Lerner (Ed.), *Developmental Psychology: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pp. 1-64).* Hillsdale, N. J.: Erlbaum Associates.

Browne, M., & Cude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Bollen & J.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Caruso, D.(1996). Maternal employment status,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development in day care and non-day care groups. *Child Care and Youth Forum, 25, 125-134.*

Chang, Y. E.(2003). *Mothers' attitudes toward employment, maternal well-being, maternal sensitivity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outcomes when mothers engage in different amounts of employ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

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hang, Y. E., & Huston, A. C.(2001, April). *The relations of maternal beliefs about employment and infant child care to maternal well-being.* Paper presented in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N.

Cheung, G. W., & Rensvold, R. B.(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d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233-255.*

Clarke-Stewart, K. A.(1989). Infant day-care: Maligned or malignant? *American Psychology ,44,* 266-273.

Crockenberg, S., & Litman, C.(1991).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maternal and two-year-old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2,* 930-953.

Cumming, J. D.(1944). The incidence of emotional symptoms in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14,*151-161.

Farel, A. N. (1980). Effects of preferred maternal roles, maternal employment, and sociographic status on school adjustment and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0,* 1179-1186.

Fuller, B., Gretchen, C., Kagan, S. L., Gauthier, C., Huang, D. S., Carroll, J., et al.(2002). Does maternal employment influence poor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7*(4), 470-497.

Glueck, S. & Glueck, E.(1957). Working mothers and delinquency. *Mental Hygiene, 41,* 327-352.

Goldberg, W. A., Greenberger, E.Hamill, S., & O'Neil, R.(1992). Role demands in the lives of employed single mothers with preschoolers. *Journal of Family Issues, 13,* 312-333.

Gottfried, A. E., Gottfried, A. W., & Bathurst, K.(1988). Maternal employment, family environ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Infancy through the school years.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 (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 (pp.11-58).* N.Y.: Plenum.

Greenberger, E., Goldberg, W. A., Crawford, T. J., & Granger, J. (1988).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35-59.

Gresham, F. M., & Elliott, S. N.(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Han, W., Waldfogel, J., & Brooks-Gunn, J.(2001). The effects of early child maternal employment on later cognitive and behavioral outcom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336-354.

Harvey, E.(1999).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early parental employment on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5*, 445-459.

Hock, E., & DeMeis, D. K.(1990). Depression in mothers of infants: The role of maternal employ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83-291.

Hock, E., & DeMeis, D. K.(1990). Depression in mothers of infants: The role of maternal employ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83-291.

Huston, A. C., & Aronson, S. R.(2005). Mothers' Time With Infant and Time in Employment as Predictors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6(2)*, 467-482.

Jacobson, J. L., Wille, D. E.(1984). Influence of attachment and separation experience on separation distress at 18 months. *Child Development, 20,* 477-484.

Klein, M. H., Hyde, J. S., Essex, M. J., & Clark, R.(1998). Maternal leave, role quality, work involvement, and mental health one year after delive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 239-266.

Kline, R. B.(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The Guilford Press.

Lerner, J., & Galambos, N. (1988). The influence of maternal employment across life: The New York longitudinal study.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 (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 (pp.85-119). N.Y.: Pleum.

MacEwen, K. E., & Barling, J.(1991).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experiences on children's' behavior via mood, cognitive difficulties, and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35-644.

Mathews, S. M.(1934). The effect of mothers' out-of-home employment upon children's ideas and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18,*116-136.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7a). Child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Merrill-Palmer Quarterly, 43,* 340-360.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8a). Early child care and self-control, compliance, and problem behavior at 24 and 36 months. *Child Development, 69,* 1145-1170.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8b). Relations between family predictors and child out-

comes: Are they weaker for children in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119-1128.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0). The relation of child care to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 960-980.

OECD, 『*2005 Employment Outlook*』

Radloff, L.(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10.

Repetti, R. L., Matthews, K. A. & Waldron, I. (1989). Employment and women's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4,* 1394-1401.

Ruhm, C. J.(2005). *Maternal Employment and Adolescent Development.* IZA Discussion Paper No. 1673.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761668.

Spielberger, C. D., Gorsuch, R. L., Lushene, R., Vagg, P. R., & Jacobs, G. A.(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m 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y Press.

Steiger, J. H.(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Stuckey, M. R., McGhee, P. E., & Bell,N.J.(1982). Parent-child interaction: The influence of maternal employ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8,* 635-644.

Vandell, D. (1979). Effects of a play group experience on mother-son and father-son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79-385.

Vaughn, B. E., Gove, F. L., & Egeland, B.(1980). The relationship between out-of-home care and the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Child Development, 51,* 1203-1214.

Waldfogel, J., Han, W. J., Brooks-Gunn, J.(2002). The effects of early maternal employment on child cognitive development. *Demography, 39,* 369-392.

Yarrow, M. R., Scott, R., deLeeuw, L., & Heinig, C.(1962). Child-rearing in families of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Sociometry, 25,* 122-140.

□ 접 수 일 : 2008년 12월 31일
□ 심 사 일 : 2009년 01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2월 26일